

글 심는 순서 Contents

- 04 나마스페, 동게스와리**
종소리와 함께 달려오는 아이들
동게스와리의 희망
- 08 필리핀, 민다나오**
봉사는 대단한 기회이고 경험이에요
7차 필리핀 선재수련
- 13 특집 _ 수자타아카데미 방문**
동게스와리에서의 3일간은 환상 그 자체
빨간색 매니큐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즈 꾸마르
- 22 따뜻한 이웃**
작은 기적을 만든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모금을
- 26 후원가족 이야기**
나눔의 미학
- 28 현장소식**
인도·필리핀
- 30 후원안내**
신규회원·미처리자
아름다운세상 저금통
특별후원금·북한결연현황·물품후원
CMS 신청안내



종소리와 함께 달려오는 아이들

김 신 아 인도JTS 자원활동가

땡땡! 이곳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매일 오전 11시 40분이면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가 울립니다. 종소리와 동시에 제일 먼저 모습을 보이는 것은 1, 2학년 아이들입니다. 쪼그마한 아이들이 탈리(개인용 접시)를 한 손에 들고 운동장을 가로 질러 식당 쪽으로 마구 뛰어 오는 모습에 매일매일 점심시간을 실감합니다. 수업이 끝난 것이 신난 것인지, 밥 먹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나 봅니다.

펌프대에서 탈리를 씻고 나서는 부지런히 밥줄을 섭니다. 중간 중간 새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럼 뒤에 있는 아이들과 자리싸움도 일어납니다. 쪼그마한 아이들이 밥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속으로는 귀엽기도 하지만, 이 때 저는 약간 인상을 쓰면서 줄을 서라고 소리칩니다. 제 소리에 아이들이 놀라서인지, 일단 배식이 시작되면 차례차례 밥을 받아 앉습니다. 전체 배식이 끝나갈 때쯤 다 같이 공양계송을 외우고 밥을 먹습니다. 특별한 메뉴가 아님에도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서도 몇 명 아이들은 밥이 부족한지 또 밥을 받아갑니다. 특별식으로 과일이 나오는 금요일이면 점심시간이 더 분주해지고 아이들의 눈도 더 초롱초롱해집니다. 저학년

배식이 끝나갈 때쯤 되면, 이제 슬슬 각 마을 유치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에 수업을 받으러 온 상급생들이 밥을 받기 시작합니다. 상급생들은 나이가 있어서인지 꼬맹이들에 비해 좀 느긋하게 밥을 받아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의 점심이 끝나갑니다.

한참 기숙사 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공사장 노동자들까지 합쳐 하루 평균 630명의 사람들이 100kg이 넘는 쌀을 먹었습니다. 쌀 1kg에 인도 돈으로 10루피 정도 하는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00원이 약간 안 됩니다. 쌀 1kg에 6명의 아이들이 밥을 먹는 꼴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아이 한 명분의 쌀에 우리 돈 50원이 쓰이는 것입니다. 처음 학교를 열고 아이들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 고생했는데, 급식을 시작하면서 피부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초기 활동가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점심 한 끼지만 크지 않은 돈으로 배우는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 줄 수 있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급식에서 챙겨야 할 곳은 학교 아이들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간식으로 드라이푸드(콩 볶은 것, 쌀 튀긴 것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장을 봐오면 다음 날 상



급생들이 쉬람담 (공동운력) 시간에 그것을 유치원별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해당 유치원 상급생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 일주일치의 드라이 푸드를 자전거에 싣고 갑니다. 그 밖에도 결핵환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수·목요일에는 약 40명의 환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환자가 많은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드라이 푸드로 아침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꾸준히 약을 챙겨먹는 것만큼이나 충분한 영양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끔 지바카 병원에서 우두커니 앉아 아침밥을 기다리는 환자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갓 지은 따뜻한 밥이 더없이 소중한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이면 학교와 유치원 아이들, 교사와 스텝과 노동자 그리고 결핵환자들이 일주일 동안 먹을 식재료를 사러 가야에 장을 나 갑니다. 갈 때는 빈 차로 나갔다가, 올 때는 텀포 (짐을 실을 수 있는 차) 한 대를 더 잡아서 한가득 짐을 싣고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가야 시내를 돌아다니다 돌아오면 온 몸이 먼지투성이고 몸도 고단하지만, 점심시간 종소리와 함

계 신나게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에 벌써 제 배가 불러집니다. 이곳에 와서 공양간 살림을 맡은 지 6개월이 되어갑니다. 밥은 이곳 현지인이 짓고 저는 몇 가지 일을 거들 뿐 하는 일이 없음에도,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밥은 제 시간에 나오는지, 양이 모자라거나 남지는 않는지 등 익숙해질 만도 할 텐데 매일 반복되는 걱정입니다. 마케팅을 나가서 적은 돈으로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비교해가며 상인에게 물어보지만, 솔직히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작은 돈으로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고, 이 밥이 배우는 아이들에게 영양을, 아픈 환자들에게 건강을, 스텝과 노동자들에게 다시 일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큰 부자가 된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TS]

- 김신아님은 2007년 8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는 비행기 값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느릿느릿 그러나 결코 느리지 않는 몸짓으로 인도에서 불가촉천민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도 이름은 라니, 라니 시스터라 불리고 있지요.

동계스와리의 희망

김재령 인도JTS 건축담당

흐드러진 노란 유채꽃 뒤로 수자타 아카데미 기숙사가 하얀 속살을 보인다.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세상에 나온 기숙사는 단아한 모습으로 붉게 물든 저녁놀을 바라보고 있다.

불가촉천민 마을인 이곳 동계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가 세워지기 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고, 점심시간에는 무료로 점심을 나눠주었다.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키도 많이 크고, 활기차게 놀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한다. 그러나 상급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수준 높은 교육과 수련을 받고,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대자동차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동계스와리 아이들의 이런 소망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2억 원이라는 큰돈을 지원했다. 기숙사 공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기숙사를 짓는 것은 많은 사람과 물자가 필요한 대규모 공사였다. 마침 이곳 동계스와리에는 농사 외에는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서 실업자들이 많았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기술이 없어서 막노동판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 기숙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설레게 했다. 우리는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기술이 없는 청년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집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기숙사 공사는 가난한 청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었고, 그들에게 기술습득이라는 큰 선물도 주었다. 기숙사 공사에 참여한 청년들 중에 상당수는 어디를 가더라도 기술자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기숙사 공사는, 최소한 나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일꾼들에게 매일 일거리를 주고, 그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에 경험이 없었던 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기숙사

왼쪽에서 3번째가 김재령님.
2년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공사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규모의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어서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고, 인도의 건축 관행을 몰라서 외부업자들과 많은 마찰도 있었다. 일부 인도의 상인은 외국인인 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팔기도 하는데 이런 상인들과 물건을 흥정할 때 녹초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청년들 또한 40도가 넘는 고온에서 벽돌을 쌓고, 자재를 날랐다. 그들이 입은 옷은 땀에 젖어서 하얀 소금기가 옷을 뒤덮고, 그들의 눈동자는 완전히 풀렸다.

기숙사 준공식이 있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숙사를 보고 흐뭇해하였다. 나와 우리 공사장 청년들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공사를 하는 중에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울고 웃고 했던 지난 2년의 추억과 기간 내에 지을 수 없을 것 같던 기숙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 성취감으로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이제 기숙사 준공식도 끝났다.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들은 크고 시설이 좋은 기숙사에서 공부에 더욱 열중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숙박교육프로그램으로 그들은 학교의 지도자를 넘어서 가난한 동계스와리와 인도의 지도자로 거듭날 것이다. 그리고 공사장 청년들은 그들이 배운 기술로 가족을 부양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숙사는 이제 동계스와리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잃어버렸던 꿈이다. 현대자동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단순히 기숙사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미래를, 희망을 찾지 못하던 사람에게 희망을,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꿈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현대자동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TS]

- 김재령님은 토끼처럼 동그란 눈에 순박한 웃음을 짓는 청년(?)이다. 독특한 영어발음을 구사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장의 마인드가 아니라 수행자의 마인드로 늘 현장에 서고자 한다. 인도 이름은 아눈, 아눈 브라 더라고 불리운다.

봉사는 대단한 기회이고 경험이에요

파트리샤 보르하 민다나오 JTS 자원봉사자, 올 3월 초등학교 졸업 예정

JTS에서 봉사하는 일은 대단한 기회이고 경험이에요. JTS를 통해서 저는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또한 원주민과 한국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사무실 일인데요 수업이 없는 날에 하고 있어요. 제가 잘 하는 일은 영수증 붙이는 거예요.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어요. 이 일이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방식이에요. 가끔씩 같이 일하는 한국인이나 필리핀 봉사자들과 얘기하는 것도 즐거워요.

JTS는 민다나오에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에 학교를 지어서 제 또래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또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전통학교를 짓기도 하구요. 이런 지역을 방문하고 한국의 대학생과 필리핀의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평화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모험적인 활동이에요. 캠프가 열리는 장소에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모험이죠. 도착하면 땀이 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걷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어요. 좀 피곤하거나 땀이 나긴 해도 정상까지 걸어오르는 일은 언제나 재미있는 경험이에요. 산 꼭대기나 거의 산 정상에 가까운 곳을 제일 좋아하니까



요. 꼭대기에서 보는 주변의 산들과 아래 들판은 언제나 경치가 좋아요. 현장을 방문하는 것과 평화캠프 때가 이렇게 산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좋아하는 지역 중 하나가 란타판의 송코(Songco, Lantapan)예요. 여기는 안 걸어도 돼요. 여기 갔을 때 많은 예술가들이 이 마을에 있고 훌륭한 예술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조각, 춤, 노래, 악기 연주, 스케치, 그림 회화 등 여러 종류의 예술을 보았는데 이 중에 그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을의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전부 자신들의 문화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일이에요. 평화캠프가 열렸던 곳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곳은 리보나의 칼라수얀(Kalasuyan, Libona)이에요. 틀에 포대 2 장을 깔고 흙벽돌 만드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만드는 과정은 이래요: 틀에 코군(억새와 같은 풀)을 섞은 흙을 채워 넣고 나무 방망이를 내리쳐 흙을 다져요. 다시 흙을 채우고 다지고 틀에 딱 찰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진 흙벽돌을 보는 기분은 굉장해요. 코군을 자르는 일도 재미있었어요. 교실 바닥을 메우기 위해 포대에 흙을 담아 옮기는 일은 좀 힘이 들었어요. 흙포대가 무거웠지만 한국 대학생이 거들어주어서 훨씬 가볍게 느껴졌어요. 다른 봉사자들도 제가 흙 나르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도우면서 일을 했어요.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한다는 일이 좋게 느껴졌어요.

지난 12월에 알라원에 갔던 일이 기억나요. 사람들이 전부 출발하기 전에 너무 무서웠어요. 나무에서 머리 위로 떨어진다는 거머리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었죠. 다른 사람들과 한참을 걸어서 다리에 도착했을 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감사했어요. 비가 올 때만 거머리가 나온다고 엄마가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잠시 후에 거머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곳에 지은 학교 준공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거의 뛰다시피 했어요. 피곤해질 때마다 멈추어서 숨을 골랐어요. 길이 오르막길에 이르렀을 때는 출발한지 3분도 안 되어 쉬어야 했어요. 내려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몸이 다 젖고 피곤하고 숨이 가빴어요. 사람들은 먼저 가고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에 제일 도전적이었어요.

이 밖에 멋진 경험을 했던 곳들이 더 있어요. 제가 JTS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감사해요. 즐겁고 도전해볼 만하고 모험적인 경험이거든요. [JTS](#)

- 파트리샤 보르하 : 민다나오 JTS 대표 트렐(세비아대학 농과대학 학장)과 도동(농업기술자)의 딸. JTS 민다나오 사업장에서 자원활동하는 엄마, 아빠를 따라 함께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이쁜 초등학생.

It is a great opportunity and experience being a JTS volunteer. JTS has helped me a lot and I have learned many things; I have learned also about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 Koreans.

Working in the office is my main job during the days when there is no class. My favorite part is pasting the receipts. It might be a bit tiring but it is also enjoyable. It is one of my ways of helping others. It is also fun talking once in a while with my Korean and Filipino workmates.

Visiting projects and joining peace camps are the most adventurous activities. It is like an adventure in every step to reach the places where the camps and projects are. I would sweat when I arrive. But there are also places that do not need to be reached barefoot. It is always an enjoyable experience walking to the top even if I'm tired or sweating, because my favorite part of the mountain is at the very top or almost at its top. It is always a good view to see the neighboring mountains and the fields below. It is during project visits and peace camps where I get the chances to go to the mountains and watch the beautiful views.

One of my favorite project areas is in Barangay Songco, Lantapan. You can reach the place by car. When I went there, I discovered that there were many artists or aspiring artists living there. I saw various art forms like, carving, dancing, singing, playing instrumental music, sketching, drawing and painting, which I was interested the most. And everything they did is to keep their culture alive.

For peace camps, one of my favorite sites is the one in Kalasuyan, Libona. I enjoyed making soil blocks using a molder with two pieces of sack. The procedure was like this: fill the molder with soil mixed with cogon grass, then smash it with a wooden mortar, add soil, smash it again, repeat the procedure, until the molder is full. Looking at the finished product was wonderful. Cutting the cogon grass was also fun. Carrying the soil in a sack to the school area, which was to be leveled, was challenging. The sack was heavy, but it felt much lighter when a Korean student helped me carry it. Other volunteers also helped me carry sacks of soil to the area. Everyone was helping and working. I felt good knowing that all have something to do together with the others.

I remember the walk to Alawon last December. Before everyone started walking, I was so scared. I heard a lot about the leeches and I thought about being bitten by one. But after marching a long way with the others and reaching the bridge, I was thankful that nothing happened. My mother told me that they will only come out when it is raining. But in a short time I forgot about the leeches. After the ceremony, we returned to our way. I was half-running. I stopped to catch my breath every time I grew tired. But it wouldn't take three minutes when I stopped again because the road was a bit sloping going up. I wasn't thinking of getting lost for there was only one way going out. In the end, I was so wet, tired, and out of breath. There was no one with me. It was like getting lost in the desert. This was the most challenging experience I ever had.

There are also other places where I had good experience.

I am thankful that I joined JTS. It is an enjoyable, challenging and adventurous experience.



깔라수안에 도착하여 기념 사진. 왼쪽 뒤로 보이는 곳이 두 번째 교실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송 현 자 필리핀JTS 자원활동가

지난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민다나오의 깔라수안(Kalasuayan)과 세비아 대학(Xavier University)에서 7차 필리핀 평화캠프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학생 13명, 깔라수안 청소년 12명, 실이폰&산호세 청소년 5명, 송코 청소년 4명으로 이루어진 참가자들은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깔라수안에서 학교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깔라수안은 예정된 교실 두 칸 가운데 한 칸은 거의 완성되고 두 번째 교실 공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이티스에서 흙벽돌로 건물을 짓는 실험적인 곳으로 민다나오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흙과 코균(풀 종류)으로 집을 지을 수 있어 벌써부터 인근뿐 아니라 여러 곳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주로 흙벽돌을 만들고 두 번째 교실 골격이 올라가도록 도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흙벽돌을 만들고, 만든 흙벽돌을 옮기고, 흙벽돌에 들어가는 흙을 파서 나르고 코균을 잘라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한 쪽에서는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도록 흙을 퍼서 날랐습니다. 두 번째 교실이 들어설 부지에서는 조금은 공사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이 마을 봉사자들과 함께 기초 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아침부터 내려 쬐는 강렬한 햇볕이 힘들게 하였으나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쏟아질 때는 일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 외에 벽돌과 시멘트등 건축 자재를 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인 다리에서 마을까지 오르막길을 20여분간 들고 지고 오르는 일은 길이 미끄럽고 햇볕이 강렬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평화캠프는 이전에 캠프에 참가했던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1. 멀리진 민다나오



2

1. 흠벽돌에 들어가는 규운을 썰고 있는 파트리샤와 트렐(세비아대학 교수, 민다나오JTS 대표)씨.
2. 흠벽돌을 옮기고 있는 참가자들. 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5백여 장의 흠벽돌을 만들었습니다.
3. 기념식수로 두리안 묘목을 심고 있음. 장래 학교 학생들에게 과실수 두리안을 선물하였습니다. 4-5년 후면 어린 학생들은 간식으로 맛 있는 두리안을 먹게 될 것입니다.
4. 송코 청소년 공연
5. 한국 학생들 공연
6. 평화포럼
7. 짜이집 & 바자



3

다. 산호세 청소년은 3, 4차 캠프에 참여했고 송코 청소년은 5, 6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먹고 놀면서 자신과 다른 상대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아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깔라수얀은 히가오는 원주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독교 문화가 거의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을 청소년들은 송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춤과 음악을 선보일 때 금방 배우고 따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5

22일에는 세비아 대학에서 캠프 참가자들과 세비아 대학생들이 함께 포럼과 바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민다나오 제이티에스 대표인 도동씨로부터 민다나오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하도 커서 말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듣는 사람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했습니다.



6

4차 평화캠프가 열렸던 만타부 학교에 들렀습니다. 멀리 보이는 곳이 교사 숙소로 2월 중순 완공 예정입니다. **JTS**



7

특집 수자타 아카데미 방문



2008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동안 한국의 JTS자원활동가와 후원자들이 수자타아카데미를 방문했다.

1월 12일 진행된 수자타아카데미 14주년 개교기념식과 기숙사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그동안 후원했던 아이들이 사는 마을도 직접 방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음에 실린 4가지 글은 마을을 방문하고 돌아온 활동가와 후원자들의 현장방문 소감문이다.

동계스와리에서의 3일간은 환상 그 자체

김인숙 광주 정토회

이번 여행은 내 작은 꿈이 실현되는 다시없는 기회였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도 동계스와리에서의 3일간은 환상 그 자체였다. 수자타아카데미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해준 아이들의 해맑은 눈과 설성봉 봉사자님의 비석에 새겨진 '빛으로 돌아오소서'는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은 무엇일까? 낯선 인도가 아닌 한국에 와 있는 착각이 들었다. 텃밭도 있고, 강당도 있고, 눈앞에 전정각산도 보이고, 어느 잘 가꾸어진 기숙사학교 같은 느낌과 아이들의 재잘대는 소리는 정겹게 다가왔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맑은 목소리는 우리를 환영한다는 느낌에 피꼬리가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았다.

다음날 동계스와리 등산을 하는데 차가운 새벽공기와 가지말라고 잡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쉬워 그곳에 앉아 '꽃과 어린왕자'를 동계스와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불렀는데 눈이 큰 어린왕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내 옆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정말 어린왕자처럼... 아이와 기념으로 사진도 찍고, 손을 꼭 잡고 내려오는데 아이의 맨발을 보다가 가슴이 찡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그 아이의 발에 입맞춤을 하며 '이 곳에 아이들도 보통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수행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를 가슴에 새겼다. 다시 아이를 보고 활짝 웃으니 아이도 처음엔 놀랐는데 다시 환하게 웃었다. 우린 정말 친구처럼 즐겁게 내려와 수자타 정문에서 진한 포옹을 하고 헤어졌다. 학교로 들어오니 오늘 행사로 다들 분주한 모습들이다.

수자타아카데미 창립14주년 기념행사는 마을축제였다. 손님을 맞이하는 아이들에 들뜬 모습들이다. 예전부터 왜 '수자타'라고 지었을까 궁금했는데 법륜스님께서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미래에 부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자타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뜻으로 이름을 짓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 또한 돕는 것이 아니라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수행, 봉사, 나눔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일행중 일부는 담당을 맡아서 행사를 준비했다. 내가 맡은 일은 수자타아카데미 공사에 관계된 사람들을 대접하는 곳에 배정이 되어서 점심식사준비를 했다.



식사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야하는데 현지 사람과 나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눈으로 이야기를 하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말하고 나서 서로 이해가 되었는지 표정을 살폈다. 완전 원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도 나오고 또 다른 즐거움이 느껴졌다. 잠깐 짬을 내어 공연을 보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앉아 볼 수가 없어 뒤에 서서 보았는데 흥겨운 음악과 함께 춤을 선사하는 아이들과 능름하게 태권도시범을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마을사람들의 흥겨운 모습들 내 마음까지도 한껏 들뜨게 했다. 밖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을 보니 접시가 일회용비닐이 아니라 나뭇잎으로 만든 접시였다. 친환경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못사는 것이 잘 사는 나라보다 더 안됐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같다. 그들 속에서도 다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음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다들 마을 축제를 즐기는 모습과 돌아가는 길에 양손에 무겁게 선물을 받아가면서 뿌듯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큰 뜻을 세우고 묵묵히 행하고 봉사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구나' 를 알게 되었다.

오후에는 마을방문을 했다. 우리가 방문한 마을은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많이 떨어진 곳인데 낯선 느낌보다는 시골에 가는 느낌이 들었다. 가는 길에 어르신을 뵈었는데 무표정한 모습이 아무 희망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셨다. 그 모습과 달리 아이들은 뜻밖에 손님들이 방문해서인지 한껏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따라다녔다.

그곳의 삶은 나를 참회하게 만들었다. 두평정도나 될까하는 방이 어두컴컴한 바닥이고 살림살이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서너명이 함께 지낸다고 하니... 결핵에 걸린 환자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가!' 를 확인했다.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면 할 말이 없는 듯 그냥 지긋이 바라보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나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 건, 이런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은 슬픈 표정이 아닌 해맑게 웃고 있다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은 참회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를 생각했다. 법륜스님 법문 중에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길게 한 3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나 또한 내 인생을 현생만 보지 말고 다음생의 내 모습을 그리며 계획하고 실천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TTS]

빨간색 매니큐어

이 현 아 대구 정토회



수자타 아카데미 개교기념일, 행사를 마치고 학교 옆 마을을 방문 하였다. 차창 밖 풍경, 숲 한 영상과 얘기들로만 접했던 인도의 마을, 입구에서 보이는 이국적인 집들과 사람들. 마치 그림동화책 삽화의 한 장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다.

“나마스떼”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넸다. 수줍은 미소로 살짝, 혹은 열렬한 손짓과 함께 “나마스떼” 되돌아오는 인사 낯선 곳에서의 어색함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준다. 아이들은 앞다투어 내 손을 잡으려고 한다. 학교에서부터 내 손을 차지한 어린 여학생, 아이는 나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한다. 제 팔목의 팔찌를 나에게 끼워주고 주머니에서 매니큐어를 꺼낸다. 어떤 의심도 구김도 없이, 활짝 마음을 여는 아이 보잘것없는 내 마음이 부끄럽고 미안해, 거절도 못하고 원하는 대로 손을 내 맡겼다. 볼

때 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손톱이지만 네 손을 펴 들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서로에게 생긴 공통점 하나로 즐거워하기도 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소개시키듯 아이의 손에 이끌려, 아이의 집으로 친척집으로, 인사를 다녀야 했다. 부모님과 3명의 언니, 형부와 조카까지...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나를 반기던 환한 웃음은 지금도 선명하다.

방안을 가로질러 달아나는 새앙 쥐, 천정에서 곧 뭔가가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서둘러 나와 버리고 말았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아 진짜 그렇구나!’ 수 없이 들었던 일을 내 눈앞에서 확인하면서, 난 참 무덤덤했다. 거리모금을 하며 도움을 호소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임을 느끼지 못해 아파하지 못하는 내 마음은, 늘 숙제로 남아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서... 여전히 별로 안타깝지도 비참하지도,



아무 느낌 없는 내 마음이 당황스럽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냥 지켜보려고 애쓴다. ‘만약 이곳에서 하룻밤을 자야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인도에 와서, 침낭 속에 몸을 파묻고 이 곳 보다는 백배나 더 좋을 호텔의 이불조차 덮고 싶지 않던 나였다.

누군가 내 손을 덥석 잡는다. 멍칫, 찡한 마음이 아이의 손을 힘주어 잡는다. 아이가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 “.....”

인도에서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구걸을 한다. 구걸은 부끄럽다는 생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끈질김, 그들의 비참함이 가슴 아프기보다, 비참한 것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본다.

수자타 아카데미 아이들, 기념식장 무대 위에서, 반짝 반짝 빛나던 춤추는 아이 그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났다. 자식인지 동

생인지... 어린애를 안고 구걸 하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떠올라 ‘아이들은 제 때에 배워야 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던 마을의 모습, 아이들이 입고 있는 자주 빛 교복. 마을에서 함께했던 어린 여학생의 미래가 걱정된다. 그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다.

오늘의 이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씨앗이 될까? 크고 붉은 해, 일몰만큼은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운 인도, 척박한 땅 등계스와리에서, 붉은 노을 아래 수자타 아카데미가 희망처럼...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 [JTS]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손 상 용 제천정토회

학교 근처에 거의 다다를 무렵 구걸하는 아이들이 보이자 현지 봉사자께서 '저 아이들은 수자타아카데미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기에 구걸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해 주었다.

학교에 버스가 도착하자 제일 먼저 우리를 반기는 것은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의 힘찬 교가 연주 소리였다.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니 모두를 한번씩 꼭 안아 주고 싶은 기분이 마음 한구석에 밀려왔다.

싯다르타 기숙사 준공식과 수자타아카데미 14주년 개교 기념식 모습은 또 하나의 감동과 피로를 풀어 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였다. 인도 전통춤을 멋있게 보여 주는 귀여운 소녀들, 잦은 실수를 하면서도 끝까지 멋진 동작을 보여 주려고 노력한 태권도 시범단, 순례단을 처음부터 기쁘게 맞아주었던 밴드부의 멋진 연주 등등....

특히, 제일 감동을 주었던 부분은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의 점심 식사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일렬로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배식을 먼저 받은 학생들은 마지막 학생이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일절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이였다.

수자타아카데미에 다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침식
사를 하지 않고 등교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까지 기다
리는 동안 매우 허기가 질텐
데, 점심 배식을 모두 받을
때까지 앉아 기다리는 모습
이 너무 대견스럽고 예뻐 보
였다.



이런 모습이 감동을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가슴 아픔도 함께 밀려 왔다. 수자타아카데미 근처
에는 많은 부락이 있는데 학교 시설에 들어 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학교담장 밖에서 안
을 기웃거릴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의 집을 방문 할 시간이 되어 아이들 손을 잡고 버스에 함께 올라 아이들
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와 닿은 첫 인상은 '이런 곳에 정말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게 맞
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열악해 보였다. 김원자씨의 안내로 마을에서 제일 잘산다는 집을 방
문해 보았는데, 살림살이를 보니 한국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빈민층 보다는도 열악하다는 것을 느
낄 수 있었다.

나는 이 아이들과 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이곳 인도에 오기 전 JTS에서 거리모금 캠페인을 할 때 내 머릿속은 단지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데 의미를 두었는데, 인도 현실을 눈으로 보고 난 지금은 물러서는 마음보다 앞장서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거리 캠페인에 참석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게 한다. **JTS**

라즈 꾸마르

방 연 속 대전 정토회

6일째 되던 날은 마을방문하는 날이었다. 그 전날 몸살과 설사로 몸이 아팠는데 빨리 나아야겠다는 의지로 마음도 밝게 가지며 스스로 열심히 치료하였다.

마을 방문하던날 일행들이 내일이면 멀리 이동하는데 오늘은 숙소에서 쉬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나는 몸이 거의 다 나았다며 씩씩하게 갔다. 마을사람들을 참 만나보고 싶었다. 차량별로 각기 다른 마을로 갔는데 제가탄 6호차량은 아라르푸르 마을로 가게되었다.

앉아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수자타 아카데미에 다니는 그 마을에 사는 학생이 6명이 타고 안내하는 란잔 선생님, 마을 지도자 한분 타셨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옆 빈자리에 한 소년이 앉았다. 나마스떼 하며 서로 반갑게 손을 마주 잡으며 “your name?” 하고 유일한 저의 영어 말하기로 물었는데 못알아 들었다. 몸짓 손짓으로 겨우 10살이라는것을 알았다. 가지고 있던 디카로 얼굴사진을 찍어 보여주니 너무 좋아하였다.

란잔 선생님은 영어를 잘하였는데 통역이되는 봉사자에게 부탁하여 힌디어로 “이름이 뭐냐?”를 가르쳐달라 하였다.

“압까 남 까해?” 제가 이렇게 소년에게 물으니



환하게 웃으며 “라즈 꾸마르”한다. 우리들은 눈을 반짝이며 막 웃었다. 나의 어설픈 발음이 얼마나 우스웠을까 제 손바닥에 볼펜으로 라즈 꾸마르를 써서 보여주니 좋아한다. 라즈 꾸마르 손바닥엔 제 이름을 써주었다. 이 마을은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제일 먼 마을인데 평생 라즈 꾸마르는 이 길을 늘상 걸어 다닌단다.

길이 멀어 유치원과 저학년은 마을에 있는 수자타아카데미 분교를 다닌다고 한다. 어느듯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아이들이 몰려든다. 아기 안은 여인들도 많이 왔다. 마을은 천민과 양민이 섞여 사는데 아란잔지 선생님도 이 곳 마을에 사는 양민이란다. 라즈 꾸마르 친구들이 모여들었는데 라즈 꾸마르는 의기양양하다. 수자타아카데미 교복과 말끔하게 씻어빚은 머리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과 벌써 외양부터 달랐다.

마을입구에는 JTS에서 지원한 펌프가 있었는데 몇몇분은 물이 잘 나오는지 펌프질을 해보고 물이 잘나오니 모두들 와야 하며 박수를 쳤다.

지바카 병원에서 결핵치료를 받고 완치되었다는 가정도 가보았는데 역시 안계셨다. 알고보니 노동일을 하시는데 일을하러 나가셨단다. 주인없는 집이지만 집안도 들어가보고 창문이 없어 햇볕도 안들어오는 어두운집이 결핵에 너무 안좋다는데 라즈 꾸마르 같은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열른 자라 가옥구조를 개선하면 정말 좋을텐데 하며 기원도 해봤다.

말도 통하지 않고 생긴것이 달라도 서로 교감할수 있다는것에 참으로 감사한 날이었고 라즈 꾸마르 같은 친구들에게서 희망의 눈빛을 보며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JTS의 일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안내를 해주었던 란잔 선생님도 수자타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받은 것을 돌려주고 나눌 줄 아는 선생님께서 소중한 실천을 배울수 있는 희망찬 하루였다. 거리모금 있는 날 이젠 즐거운 마음으로 잘 할수 있을것 같다. **JTS**



작은 기적을 만든 사람들

허영진 복지사업부



13일 동안의 릴레이 모금을 마치고 피곤이 다 풀리지 않았을, 그러나 얼굴엔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의정부 금오중학교 선생님이신 정영수선생님과 김진철, 윤현명, 임운상 등 제자 5명이 2008년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동안 의정부역앞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동안 매일 북한어린이 돕기 거리 모금을 하였다.

대진대학교 재학중인 23살 김진철씨는 2007년 12월 제대후 바로 선생님의 권유로 거리모금에 동참하게되었다. 춥고 힘들었지만 모금액에 집착하지 않고 모금해주는 한분 한분의 마음을 읽게되어 2시간동안 따뜻함과 뿌듯함을 느꼈다. 북한동포가 기아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거리모금을 실행에 옮기시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의정부 공업고등학교 졸업한 후 수시합격한 20살 윤현명씨, "모두들 대학진학등 장래를 걱정하는게 대부분인데 선생님과 같이 거리모금을 하는 동안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했고 정말 행복한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모금할때 시민들에게 가끔 싫은 소리도 들었지만 노숙자가 배고프다며 돈을 요구했을때 주지않아서 마음이 아팠고 누굴먼저 도와야 하는건지 잠깐 혼란속에 빠졌었다"고.

"하기싫을때는 하지말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해라"하시며 편안하게 거리모금에 임할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선생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기 싫은 마음이 있던 날은 집에서 선적도 있다며 평소에도 북한돕기 운동, 빈그릇운동, 거리모금들 열성적이신 선생님 덕분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되어 감사하다고" 말문을 연 20살 임

윤상씨 윤현명씨의 친구이기도 하다.

"시작할 때 가족에게 말하지 않아서 나중에 어머니가 아시게 되어 친구분들 친척분들에게 자랑하시며 말씀하셨을때 뿌듯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여유있을때 도와줘야지 했는데 이번 거리모금을 해서 도울수 있게되어 기쁘다"고 했다.

따뜻한 눈길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밝은 웃음을 얼굴가득 담은 정영수 선생님은 "새벽까지 아르바이트 하느라 늘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끝까지 같이 해준 제자들에게 깊은고마움을 느낀다"며 "추운날씨 속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거리모금에 도움을 주신 노년층 분들,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거리모금활동 기간동안 총 56분께서 모금 활동을 함께 해주셨다. 총 13일 동안 133명이 모금 총액 3,209,340원을 '북한 어린이돕기' 지정기부금으로 전해주셨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네분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움을 느끼며 이분들의 사랑이 우리사회를 살맛나게 하는 원동력을 실감했다. [JTS]



제자들과 함께 모금을

정영수 의정부 금오중학교 교사

북한동포돕기 모금을 시작했다. 졸업한 제자, 이번에 수능 본 제자 그리고 그의 친구 2명, 나. 이렇게 5명으로 2주간 모금 목표액은 500만원! 목표는 크게! 북한 어린이 천 명에게 한 달간 영양식을 줄 수 있는 돈! 어색하게 “단돈 5천원이면 북한 어린이 1명에게 한달간 영양식을 줄 수 있다”며 소리쳤다. 사람들의 무관심. 과연 될까? 결과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처음에는 모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추운 날 전단지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 이 추운날 종종 걸음을 치다가 잠시 멈춰서 바라봐주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일까 생각하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유심히 보니까 옷 잘 입고 말끔한 사람들보다 허름한 옷을 입고 다소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한창 때인 젊은이들보다는,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의

눈빛을 보내준다. 모금 4일째 되던날 한 무리의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울컥했다. 의정부역 앞 롯데리아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과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셨다. 북한의 아이들을 돕자는 말에 중년의 아저씨가 모금을 했다. 그리고선 모두들 저만치 모여서 쑥덕쑥덕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마다 주머니에서 싹짓돈을 꺼냈다. 동전에서부터 꼬깃꼬깃한 천원짜리까지... 같이 모금하던 한 아이가 달려가 그 아저씨와 한참을 얘기하고 돌아와서 “교회 공부방 아이들인데요, 자기들이 도움 받고 있으니 도와주는 거래요.” 모금을 하는데 자꾸 그 아이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울컥울컥했다. 고맙다. 고맙다.... 애들아.” 모금한지 일주일 되던날 휴지를 키 높이로 잔뜩 쌓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역 광장을 지나가던 지체장애자분들이 모금함 앞에서 시터니 주머니의 동전을 꺼내서 넣어주셨다. 긴 의정부역 계단 앞에서 우물쭈물 망설이고 계시기에 저와 아이들이 달려가서 계단위까지 그 휴

지들을 함께 날랐다. 서로 환하게 웃었다. 끝날 때가 다가오니 처음 목표로 잡았던 모금 목표 500만원이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자꾸 과정의 즐거움을 놓치게 됐다. 첫날 12만원을 모금받고 좋아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한데, 이제 15만원, 17만원을 모금받고도 '겨우' '부족한데...' 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모금해주던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에 눈길을 맞추더니, 자꾸 모금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눈길을 던진다. '저 사람들이 천원씩만 모금해주면 500만원 되는데...' 또 주인과 손님이 바뀐다. 목적이 뒤집어져버렸다.

"결과에 신경쓰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어제 모금이 아주 잘 되니까 오늘은 자꾸 잘하고 싶고, 잘 안되니까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의 얘기에 또다시 정신차리게 된다. '모금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는 내 몫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계획한 모금이 끝났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잘 알겠다. 사실은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겠다.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고, 내가 하고 싶은대로 했고, 내가 좋았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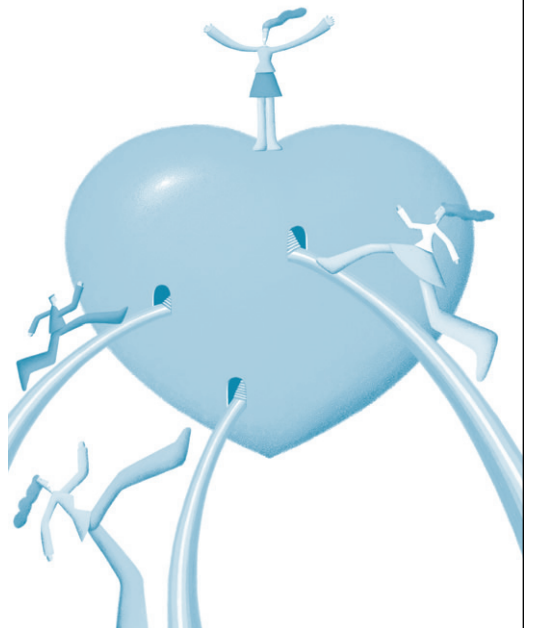
'내가 잘 했다'는 생각이 불쑥 올라온다. 그 생각을 누르는 자신을 본다. '그러면 안되지. 니가 잘 한게 아니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금을 하지 않았으면 니가 어떻게...' 말로는 나를 껴안아줘야지 하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나를 누

르고 있는 나를 본다. 마음은 칭찬받고 싶어한다. 생각은 '그러면 안된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나를 한번 껴안아본다. 마음으로 눈 감고 나를 안아주면서 말했다.

'잘했다. 추운데 아프지 않아서 고맙고, 빠지지 않고 잘 버티주어서 고맙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계속 저를 껴안아봅니다. 마음이 동실동실 떠오르고, 몸에 털이 곤두서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기분이 좋다. 그렇게 기분이 좋더니만, 문득, 함께해준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 둘씩 떠오른다. 그들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질 수록 행복해질거라고 생각하며 더 가지려 애쓴다. 많이 가지고 나면 그때 나누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TS]





나눔의 미학

오금실 서울정토회

돼지 저금통을 분양할 때의 일이다. 식탁위에 저금통을 갖다 놓았다. 그리고는 내가 밥을 먹으려는 순간, 돼지 저금통, 그 것이 바로 굵어 죽어가는 아이로 보이는 것이었다.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동전을 찾아 넣었다. 다시 앉아 밥을 먹으려하니 차려진 음식이 너무나 호화스럽게 느껴지면서 동전 몇 닢 넣고 그걸로 위로 삼아 음식을 먹으려는 내가 부끄러웠다.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돼지에게 밥을 먹일 수 있을까?

JTS에 가서 저금통을 많이 가져왔다.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그리고 앞집, 세탁소, 미장원, 꽃집, 생선가게, 동창모임, 친구, 동호회원, 동네친구엄마, 요구르트 엄마, 누구에게라도 다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러나 분양한 돼지를 회수할 일이 난감했다. 궁리 끝에 모두에게 편지를 보냈다.

성과는 별로 없었으나 이 일을 알리는 기회가 된 것, 그리고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던 어느날, 노래를 불러 모금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나는 들어서자마자 한가운데 넙죽 엎드려 큰 절을 했다. 큰 웃음이 터져 나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익어갈 무렵 내가 모금하는 뜻을 밝혔다.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 대신 노래를 한 곡 부르겠다며 정성을 들여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도 않은 한 친구가 선뜻 나서서 일어나 모금을 하는 것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보니 내 자리 앞에 후원금이 수북하게 쌓아 놓여져 있었다. 몇 번의 모임에 가서 이런 식의 즉석 공연을 해서 모금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더욱 사랑스럽고 마음 뿌듯한 것은 하루하루 폰폰이 마음 모아 넣은 저금통! 그 한통 한통을 받아 들고 은행에 가서 지폐로 바꿀 때이다. 그때의 나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했다.

‘1 달러의 사랑’ 모금을 할 때는 열장이 들어있는 명단책자를 돌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모금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다. 무슨 일이든 여럿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복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함께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열심히 모금을 했다. 단 몇 폰으로 몇 끼의 식사가 해결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데 어찌 동참 안할 수가 있겠는가? 시일이 촉박한지라 이번에는 내 스스로가 좀 많이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모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머리에서 맴돌았다.

모금을 하려면 내가 먼저 나누는 마음을 내어 몸소 실천해야 한다.

배고파 죽어가는 모습이 떠올려지면 그들에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들어지는 것이니. 남에게 돈을 내게 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기분이 안 좋아도 잘 견뎌내며 우선 참아 넘기고 그리고 이해하게 된다. 끊임없이 정진하지 않고는 모금을 계속 할 수가 없다. 상대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 해도 매일 명상을 한다.

돌이켜보면 모금활동에서 나는 도리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모금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란 점이다. 앞으로는 이들이 계속해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JTS**



1-1



1-2



1-3



2



4-1



4-2



8

인도소식

1 15차 동계구호품 긴급분배로 따뜻한 겨울나기

지난 1월 26, 29일 양일간에 걸쳐 동계스와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동계구호품 분배가 진행되었다. 때 아닌 겨울비와 기온 급락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 추위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했다. 한국에서 막 도착한 콘테이너에서 겨울담요, 외투, 털옷 등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총 1,300가구 8,400여명의 마을주민에게 골고루 지급하였는데, 특히 가족 여럿이 한꺼번에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큼직하고 따뜻한 털담요는 밤새 추위에 떨어야 하는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의 구호품이었다. 행사 첫 날, 보드가야지역 행정관이 직접 분배현장을 방문하여 JTS의 구호활동을 격려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동계스와리 마을사람들 중 이불이 있는 집은 거의 없다)

2 수자타 아카데미 기숙사 완공

지난 1월 12일 수자타 아카데미 기숙사 준공식이, 3,5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후원한 수자타 아카데미 기숙사는 4인용 방 24개, 3인용 방 4개, 모임방 2개, 식당, 부엌, 사무실 등을 갖춘, 연건평 540평의, 3층 현대식 건물이다. 2006년 1월 공사를 시작해서 만 2년 동안 48,000여명의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땀과 정성으로 지어진 기숙사는 어린 학생들의 꿈과 희망, 미래 그 자체이다.

3 수자타 아카데미 14주년 개교 기념식과 시타르다 기숙사 준공식

1월 12일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성지 순례객 280여명과 대학생 80여명 학생, 어머니회 공사장 가족, 두르가푸르, 자그디스푸르 마을주민을

포함한 인도인 3,500여명이 행사에 참석하여 수자타 아카데미 14주년 개교 기념식과 시타르다 기숙사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4 법륜스님 인도 사업장 방문

1월 22일 JTS 이사장인 법륜스님이 인도 JTS 사업장을 방문해서 인도 현지 활동가와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 노동학교 학생들과 전체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16개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고, 인도 JTS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5 인도 공화국 기념일 행사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1월 26일 인도 공화국 기념일을 맞아 기념행사로 국기계양식, 문화행사와 전교생에게 특별식 제공이 있었습니다.

6 수자타 아카데미와 유치원 연말 시합

수자타 아카데미와 17개 유치원에서는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말 시합이 있었습니다.

7 수자타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트와 구호품 지급

2월 25일부터 8일 동안 동계스와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정부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가한 마을 사람들에게 콘테이너를 통해 받은 구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8 대학생 선재수련과 성지순례

대학생 80여명이 1월 6일부터 1월 22일까지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선재수련이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 준비와 유치원에 목욕 심기가 있었고,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는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9 제 6차 청소년 워크캠프 진행

청소년 3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청소년 워크캠프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유치원 벽화그리기, 동계 구호품 준비, 상급생들과 놀이수업을 하였습니다.

10 태권도 교사 고빈다 브라다 (박명주) 귀국

수자타 아카데미 태권도 교사로 활동 하였던 박명주님이 1년 동안의 자원 봉사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 습니다. 그 동안 아이들이 밝고 씩씩 하게 자랄 수 최선을 다해주신 고빈 다 브라다에게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소식

11 7차 평화캠프

1월 10일에서 23일까지 칼라수안 마을과 세비어대학에서 제7차 필리핀 평화캠프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학생 13명, 칼라수안 청소년 12명, 실이 폰&산호세 청소년 5명, 송코 청소년 4명으로 이루어진 참가자들은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칼라수안에서 학교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두 번째 교실에 들어가는 벽돌을 강에서부터 나르는 일부터 흙벽돌을 만들고 흙을 퍼서 날라 교실 바닥을 메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22일에는 세비어 대학에서 캠프 참가자들과 세비어 대학생들이 함께 평화포럼, 바자,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바자 수익금으로 한국 대학생들은 506페소를, 세비어 대학생들은 190페소를 JTS에 기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도희 대학생들은 한국에서 짜이집을 열어 얻은 모 금액 백만원도 기부하였습니다. 5백 명의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12 송코 & 깔라수안 현장방문

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필리핀 JTS 이원주 대표 외 2분과 함께 송

코와 깔라수안을 방문하였습니다. 송 코는 원주민들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평화기념관 건축을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 3월 예정인 준공식에 맞추어 완공될 수 있도록 부족 대표 와 협의하였습니다. 깔라수안은 1월 말 이후 신인민해방군 출현으로 일부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기도 하였지만 마을 지도자는 남아있는 사람들만으로도 작업봉사 스케줄 을 짜서 학교를 꼭 완공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준공식은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13 무나이 핀돌루난 물탱크 배달

지난 1월 29일 핀돌루난에 식수 탱 크 1000리터 짜리 4개가 배달되었 습니다. 작년 12월 14일 파이프 배달 과 함께 시작된 수로 공사로 이제 마을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수인성 질병 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 깔라수안 수로 공사

1월 7일 깔라수안 마을 주민들은 수 로 파이프 연결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을에서 수원지까지 약 2km의 거리로 이제 주민들과 아이들은 물을 길러 멀리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 다. 그리고 마을 광장에서 맘껏 뛰어 놀다 목이 마르면 바로 옆에 있는 수도에서 언제든지 물을 축이고 맘도 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 미카실리 방문

지난 12월 27일 민다나오 JTS 스탭 과 민다나오 원주민 대표인 다투 미 케타이를 비롯한 12명이 미까실리를 방문하여 올해 학교 건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JTS에 서는 건축 자재만을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노동력을 제공 하여 짓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학교는 전통문화도 함께 배우는 생활 전통 학교로 마노보 부족 특유의 건축물 로 지을 예정입니다.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 대구

광명역집 12,410 권영순 41,100 김태오 35,620 무명 19,260 박복주 17,150 박수정 14,600 범물동홈마트 19,060 윤여영 17,250 이상윤 34,350 이순옥(명심각) 132,360 장선옥 67,620 조옥분 27,120 조현규(3개) 102,340 차운백 60,320 채정기 22,170

→ 대전

곽영술 43,440 구민성 30,420 김관모 24,450 김기일 21,040 김대웅 21,100 김백식25,000 김은주 20,110 김정숙 17,540 김정환 28,010 김중덕 16,890 김진아 42,000 김진언 33,110 김찬술 27,720 김한결 11,000 꽃피는학교 21,450 매봉농협 17,350 모부성슈퍼 9,850 무명 8,910 무명 17,850 무명 12,160 보부상 8,030 보부상마트 23,380 성재훈 21,540 수정슈퍼 120,130 심석영 13,380 오신우 14,090 오윤옥 23,900 유인자 28,330 이경민 42,170 이동진 26,460 이미경 35,050 이영주 12,420 이영혜 23,910 이은정 29,220 이주찬 18,570 장병윤 24,330 장우상 26,100 전은숙 13,400 정택선 18,120 조현중 28,210 진성근 23,790 천상영2개 47,740 천원규 46,630 최병연 28,790 최창희 26,130 최진실 21,250 풍년부동산 18,700 한재홍 10,000 한정희 32,250 홍남영 22,940 황인성 30,210 황호연 26,390

→ 동래

김성환 17,740 김춘식 4,440 김평환 34,930 무명 28,560 무명 16,350 무명 30,820 박귀곤 22,820 박신영 24,430 법문주 128,750 서은정 13,320 신형 32,510 이경희 27,030 이상현 32,900 임지서 17,550

→ 마산

기희정 17,550 거마테크 15,290 구순희 29,620 김삼선 17,330 김상엽 11,890 김영석 23,720 김진래 9,330 동국내화주부선분부 89,670 로알통상 25,670 마산법명문 앞 39,540 무명 8,960 무명 11,310 무명 6,260 박인선 28,200 박정주 21,370 선할심강명수 25,410 유광열 29,480 이경숙 15,940 이광현 6,810 이동식정형외과(이승현) 25,600 이동식정형외과(이지은) 24,700 이동식정형외과(정안숙) 24,400 이상숙 6,740 주정희 15,300 최정애 5,710 함포의원 18,270 황성부부한의원 16,270 XO이명세 34,170

→ 서울

강남석유 10,040 고영석 18,690 권재영 33,160 김경숙 3,720 김덕희 220,110 김미경10,890 김미수 23,730 김복순 25,990 김석순 33,820 김성순 23,090 김소영 29,300 김아름 21,620 김영매 12,500 김영애 28,760 김영애 4,760 김오기 63,330 김정훈 15,460 김정희 33,640 김정희 36,050 김주영 3,490 김주은 5,060 김창수 32,490 김희경 9,590 녹색가게신사 4,740 대해심김영숙 22,410 류정수 11,160 맹진희 8,880 무명 3,030 무명32,710 무명 19,580 무명 10,010 무명 16,970 무명 30,350 무명 15,880 무명 11,940 무명 61,910 무명 40,760 무명 24,920 무명 7,890 무명 18,330 무명 18,420 무명 25,990 무명 24,840 무명 42,130 무명 58,120 무명 18,400 무명 20,360 민정원 20,140 박상태 15,310 박성광,김혜경 38,110 박성진 30,500 박수현 20,500 박하영 18,310 배유진 6,520배민자 24,170 벌류 22,840 북경한국국제학교 18,300 석정자 32,670 송운화 17,240 시저스헤어라인 16,960 신방학중3-5 21,050 신방학중3-7 10,310 안수진 28,260 안주영 17,530 양명숙 16,290 유영란 12,800 윤영섭 27,480 윤영화 13,450 이경분 29,250 이남규 7,060 이명자 24,020 이상임 40,660 이선주 24,760 이주영 13,640 이혜정 26,400 이희명 14,310 정미진 27,660 전상수 24,500 정기윤 18,200 정미영 17,310 정성숙 14,970정진호 38,250 정현미 6,640 조동희 24,900 (주)렉스필드 54,000 최용호,김태연 27,500 허영진 19,120 황인자 24,520 황혜선 16,180 황덕동부 15,060 LG25시릿골목 1,620

→ 울산

권형우 24,260 김기왕 22,480 김대기 15,380 김대기 12,210 김명주 28,650 김옥희 22,810 김일순 32,160 나이마트 18,690 남구축협 27,020 노일순 37,920 노일순 33,360 두레주르도성점 11,630 무명 20,650 무명 11,450 무명 3,800 무명 26,250 박선영 30,150 박양화 12,840 신한약국 11,590 안영미 18,740 알파문구 27,190 양승돈 41,830 울산축협명륜지점 26,080 울산축협중앙지점 14,690 이세한의원 17,730 자연마트 7,240 장숙희 42,470 정영미 20,250 정인권 31,460 젠레스토랑 19,400 평24시편의점이아파르크 7,890 최미자 35,090 최복순 32,780 최선에 24,930 최선에 29,170

→ 제천

박주해 26,500 박천용 25,390 보육사 25,110 신호임 21,200 유현옥 23,140 행복이가득한집 21,520

→ 청주

기흥진 27,430 김대희 36,120 김승수 29,030 김재선 98,420 김지혜 15,440 박준자 27,870 윤동수 21,880 윤이나 30,640 윤학수 21,820 정남식 27,590 황경선 16,840

→ 해운대

4-5단 23,940 가마해 17,510 김대윤 17,990 김만자 46,600 김효미 27,820 김효윤 23,770 노덕희 26,650 돈촌맷돼지 8,090 라테카페점 11,500 명가실령탕 12,530 무명 10,380 무명 18,950 무명 20,950 무명 17,530 무명 21,750 무명 16,780 무명 6,670 무명 22,150 무명 11,830 무명 19,490 박사방칼국수 9,840 베스트빈 16,390 시지초등5-3반 18,250 서정위 34,290 손명환 16,560 신석률 16,520 오록도해물당 11,540 의정부부대찌개 8,040 이광준 45,300 이재숙 28,400 이재일 32,120 이정애 32,240 이화약국강혜인 16,020 조은주 28,050 최민숙 27,490 최연식 13,080 파리버거트 24,780 하카연 4,820 허성준 91,220 by the way 2,760

→ 해외

뉴욕정도회 \$1,720 1,599,600

*거리모금 현황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광주 113,150 대구 3,145,760 대전 1,246,970 동래 2,105,930 마산 5,012,583 서울 4,721,174 울산 2,430,290
청주 345,690 해운대773,100

(사)한국JTS CMS 출금이체신청서 안내

1. CMS는 (사)한국JTS(이하 JTS)에서 정기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회원님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약정된 후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2. 출금이체약관 동의서는 후원금 출금시 임의로 CMS 도용을 막고, 후원자와 JTS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3. CMS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후원금을 인출할 통장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후원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본 단체는 회원님과 약속한 출금 날짜 2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과 후원기간동안 별도의 통지 없이 후원금을 인출합니다.
6. 정해진 기일에 인출이 없을 경우, 다음달에 CMS로 2달분 후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인출하지 않습니다.
7. CMS 신청은 출금이체약관에 후원회원 본인의 직인 혹은 서명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출금이체 약관을 꼭 읽어 보시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입금시 계좌번호

예금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국민은행	086-01-0339-254
국민은행	086-01-0339-246
농협중앙	044-01-094677
우리은행	430-04-119833
외환은행	108-22-03140-0
제일은행	427-10-011141
하나은행	103-230740-00104
신한은행	140-003-963427
기업은행	216-043061-04-013
우체국	013755-01-003667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돼지저금통)	

CMS 출금이체 약관

1. 앞면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한국JTS)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6.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7. 출금이체 해지 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문의 02-587-8992 / E-mail : jtsmember@jts.or.kr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인종과 국가, 민족, 종교,
계급, 남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이티에스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
서로 만나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